

인천국제공항 전용고속도로의 요금징수 방법 및 추가로 건설될 유료도로의 요금징수방법에 관하여

고 춘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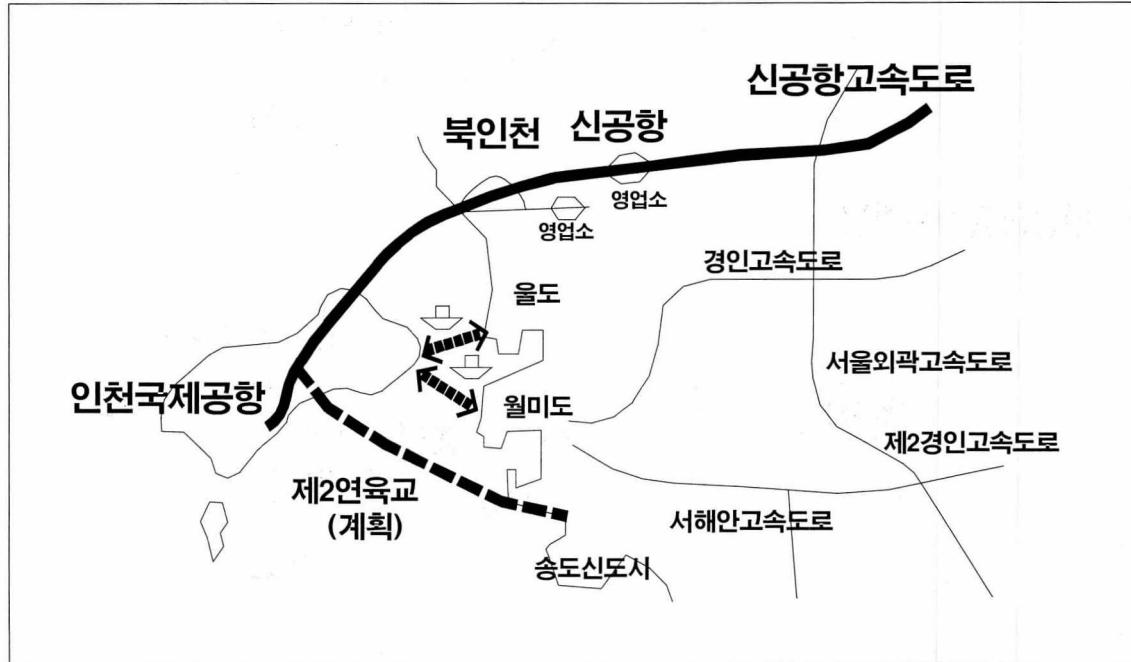
(주)평화엔지니어링 부사장

1. 개 요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새로 건설된 신공항 전용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천의 월미도와 울도에서 영종도까지 배를 이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장래에는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되

는 철도와, 인천 송도신도시와 공항을 연결하는 제2연륙교가 민자유치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 확장공사와 용유도·무의도의 국제 관광지개발이 추진될 경우 증가하는 교통량과 이용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철도나 접근도로가 추가로 신설되어 져야 할 것이다.



2. 인천국제공항 이용차량의 교통형태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객은 출발지에서 공항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교통형태를 유지한다. 즉, 서울에서 출발한 사람은 공항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고, 인천에서 출발한 사람은 공항에 갔다가 다시 인천으로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간혹 서울에서 공항으로 갔다가 인천으로 오거나, 인천에서 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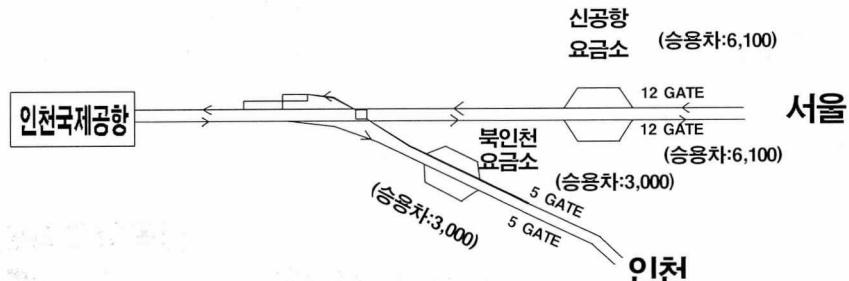
갔다가 서울로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형태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한다.

3. 현행 요금징수 방법과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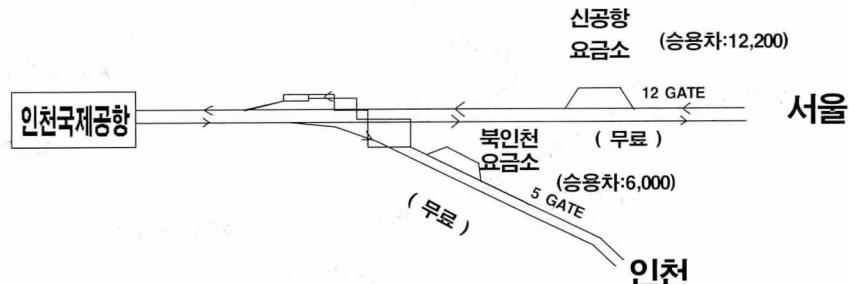
신공항 전용 고속도로는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건설된 고속도로이므로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통행료가 다른 고속도로보다

요금징수 개요도

현행요금징수방법



변경요금징수방법



3배정도 비싸다. 현재의 요금징수 방법은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일정액의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공항으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각각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가장 일반적이며 또한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조금만 변칙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대다수의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요금징수에 드는 비용도 상당히 절감시킬 수가 있다.

즉, 공항으로 들어갈 때 왕복요금을 한꺼번에 지불하고 나올 때는 무료로 통과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4. 개선효과

◦ 요금징수 비용절감

Toll Gate 수가 반으로 줄어들므로 관리비용(인건비 및 기타 부대비용)이 절감됨.

■ 신공항요금소 : 24 Gate → 12 Gate로 운영
■ 북인천요금소 : 10 Gate → 5 Gate로 운영

◦ 이용객의 편의 증대

공항에서 나올 때 요금소에서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므로 시간 및 유류 절약

◦ 요금소에서의 지체현상 해소

인천 국제공항의 항공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Hi-pass 요금징수방법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요금소에서 정체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반대편의 Gate를 이용하면 지체현상이 해소됨

◦ 장래 요금소 확장 불필요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 확장사업과 용유·무의도의 국제적인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로 요금소 확장(현재10년 기준으로 설계)이 필연적이나 변경 요금징수 방법을 채택할 경우는 기존 시설로 충분하므로 확장 불필요

◦ 장래 추가 건설될 유료도로에도 적용

현재의 요금징수방법을 고수할 경우 장래에 건설될 제2, 제3의 유료도로도 현재와 같이 양방향에 각각 요금소를 설치하여야 하나, 변경 요금징수 방법을 채택할 경우는 공항으로 들어가는 방향에만 요금소를 설치하므로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이 절감됨

◦ 배(선박)를 이용하는 경우

유료도로에서 현재의 요금징수방법을 변경하면 유료도로와 경쟁관계에 있는 선박회사들도 공항쪽(영종도)으로 들어갈 때 왕복요금을 징수하고 나올때는 무료로 하는 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나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회사 모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5. 변경요금 징수 방법의 문제점

변경요금 징수 방법의 경우 많은 개선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요금징수의 비합리성이다

서울에서 공항을 경유 인천으로 가는 승용차

출발 · 목적지	현행요금 (승용차 기준)	변경요금 (승용차 기준)	비 고
서울→인천국제공항→인천 인천→인천국제공항→서울	9,100원 9,100원	12,200원 6,000원	3,100원 과다 징수 3,100원 미 징수

의 경우 현행 요금보다 3,100원을 더 지불하여야 하며, 반대로 인천에서 공항을 경유 서울로 가는 승용차는 현행요금보다 3,100원을 적게 지불한다.

둘째 선박회사들이 변경요금 징수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선박을 이용해서 영종도로 들어온 차량이 나갈 때는 신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무료로 나갈 수 있으므로 무료 이용차량이 많아 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교통 형태는 극히 미미할 것이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각각 손해와 이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손해와 이익이 같아진다.

두 번째의 경우는 선박회사들이 왕복요금을 미리 징수하지 않을 경우 영종도에서 나오는 차량이 신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무료로 나오므로 선박회사의 수익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왕복요금을 징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결 언

왕복요금을 미리 받는다는 개념은 이용자로 하여금 다소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항을 나올 때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현재와 같은 금액의 통행료를 지

불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변경요금징수 방법에는 다소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문제점보다는 개선효과가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공항의 2단계 확장과 용유·무의도의 국제관광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요금소의 확장이 필요한 시점에는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제2연륙교 건설 시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요금소 설치비 및 관리비용이 반으로 절감된다.